

러시아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볼가-우랄의 베네치아를 꿈꾸는 곳

마리 엘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Марий Эл



목 차

서문

- 1. 개관
- 1.1 위치
- 1.2 일반개황
- 2. 자연환경
- 3. 국기
- 4. 국가문장
- 5. 역사
- 6. 정치
- 6.1 행정부
- 6.2 입법부
- 7. 경제
- 7.1 지역총생산
- 7.2 대외교역
- 7.3 인프라
- 8. 사회
- 8.1 수도
- 8.2 행정구역
- 8.3 인구
- 8.4 민족
- 8.5 교육

9. 문화

9.1 언어

9.2 전통문화

9.3 문화

10. 대한관계

참고문헌

서 문

러시아 볼가-우랄 지역에는 여섯 개의 민족공화국이 모여 있다. 그 중 세 곳은 핀-우그르계 민족들이 사는 공화국이며, 나머지 세 곳에는 튀르크계 민족들이 살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들이지만, 지리적 인접성으로 이곳의 민족들은 오랫동안 상대 문화를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공존해 왔다. 이 민족 중 마리인(마리에츠인)은 핀-우그르계 민족 중 하나로, 여기서 ‘마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고유 영토인 마리 엘 공화국은 오늘날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민족공화국 중 하나다.

마리 엘 공화국은 위치상으로는 유럽 러시아의 중심에 있으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사실 러시아에서 그리 중요한 곳은 아니다. 작은 영토에, 이웃한 타타르스탄이나 바시코르토스탄처럼 석유나 가스가 생산되거나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다. 공화국 인구 또한 칠십 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지방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곳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자, 러시아 볼가-우랄 지역의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이곳은 오랜 시기 동쪽(몽골계, 튀르크계 민족)과 서쪽(러시아인)으로부터의 침입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라 양쪽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으로 흥미로운 곳이지만, 이곳의 수도 요시카르-올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최근의 변화에서 러시아 지방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켜볼 가치가 있는 곳이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여러 주지사들과 행정 수반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마리 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마리 엘 공화국 정부는 도시 재개발, 특히 수도인 요시카르-올라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볼가-우랄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요시카르-올라를 가본 사람이라면, 마리 엘 공화국 정부가 이곳을 작은 유럽으로 재탄생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리인만의 전통적인 색체가 묻어나는 건축물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레오니드 마르켈로프(대통령 재직기간: 2001~1017)는 수도를 유럽식 국립공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을 시행했다. 요시카르-올라의 중심지에 작은 베네치아와 브뤼헤(벨기에 도시)라는, 이름부터 유럽에서 그대로 가져온 구역들이 생겨났으며, 체코 프라하의 유명한 천문시계를 따라한 시계탑도 두 개나 세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크레믈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다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를 연상하는 유사한 건축물도 생겨났다. 수도 재건축에 있어서 마르켈로프 대통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그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은 어릴 때부터 당신 주변에 있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에 매혹 당했다.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에 그 도시만의 성당이 있고 그 도시만의 광장이 있다. 시장의 성이 있고, 궁전이 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세웠던, 그곳에 직접 살았던 엘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각 가문은 궁전과 성, 공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대를 거치며 여기에 많은 것들이 더해지게 됐다”라고 한 바 있다. 이 계획으로 인해, 요시카르-올라의 말라야 콕샤가 강변은 공화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관광지이자, 러시아 볼가-우랄 지역에서 가장 유럽적인 장소로 변모했다. 강변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동차는 다닐 수 없는 도보전용으로 된 4개의 다리가 각 부분을 잇고 있다. 강변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다양한 조각상과 조형물, 도시와는 전혀 무관한 동상들까지도 볼 수 있다. 18세기 엘리자베타 여왕 동상부터 시작하여, 알렉세이 2세 총대주교, 모나코 왕인 레니에 3세와 그레이스 켈리 동상까지 말이다. 이 정책이 긍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볼가-우랄의 베네치아로 거듭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인근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화국 정부가 베네치아처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마리인의 전통, 특히 그들의 토속 신앙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980년대 말 소련 내 수많은 민족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마리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숲과 나무를 숭배하는 이들의 토속신앙에 집중되어 있었다. 18~19세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교화로 오늘날 마리인 중 60% 이상이 자신을 러시아 정교 신자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정교도라고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규정한 마리인의 대부분은 토속신앙에 기초한 의례와 관습도 동시에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러시아 정교와 마리 전통신앙을 동시에 따르는 이중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종교를 ‘이교’로 치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1990년대 초반 마리 전통신앙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마리 민족종교연합을 자처하는 ‘오슈마리-치마리’라는 단체는 요시카르-올라 인근의 숲에서 대규모 제를 올리기도 했으며,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쿠구 소르타’(큰 초)라는 종파도 활동을 재개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단체는 점차 활동력을 잃게 됐지만, 숲에서 열리는 제례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순수 마리인(치마리)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이 제례에 참여하고 있다. 즉, 마리 전통신앙은 더 이상 미개하거나 비문명적인 민간신앙이 아닌, 마리인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리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마리 엘 공화국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비중이 미미하며, 한국과의 관계 역시 미약한 곳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합류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전통 보존의 강한 의지가 공존하는 이곳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주목해 보는 것은 러시아 여러 지방의 발전 양상을 관찰하고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울 것이다.

[그림 1] 요시카르-올라의 말라야 콕샤가 강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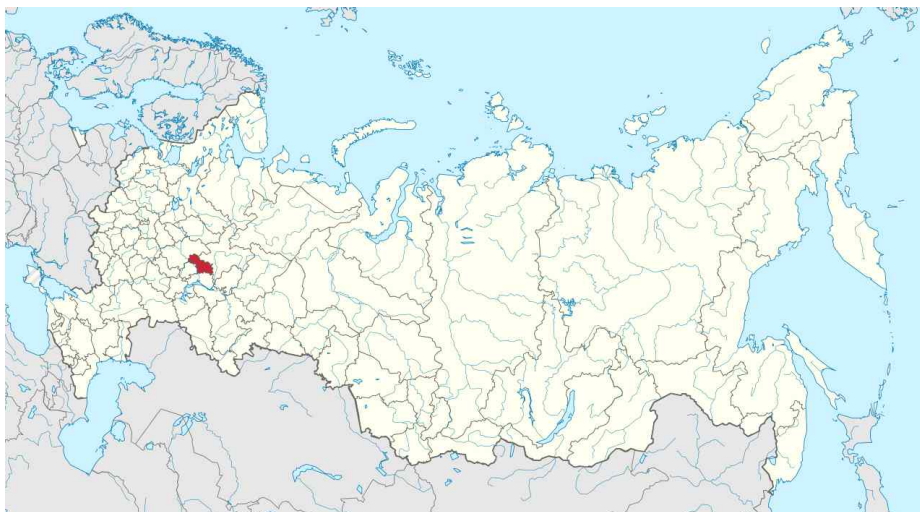


1) 김혜진 촬영

1. 개 관

1.1 위치

[그림 2] 마리 엘 공화국 위치



1.2 일반 개황

[표 1] 마리 엘 공화국 일반개황

국명	마리 엘 공화국
수도	요시카르-올라
면적	23,375km ²
인구	675,332명 (20217년 1월 기준)
민족구성	마리인(44%), 러시아인(47%), 타타르인(5.8%) (2017년 1월 기준)
공용어	러시아어, 마리어
정부형태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엡스티페예프
의회	국가회의
의장	유리 알렉산드로비치 미나코프
연방관구	불가연방관구
경제관구	불가-바트카 경제관구
주요산업	농업, 기계제작, 금속가공, 임업, 제지업 등
GRP	2,040억 루블 (2019)
1인당 GRP	30만 163루블 (2019)

2. 자연환경

마리 엘 공화국은 불가강 좌측 기슭에 접해 있다. 마리 엘 공화국의 영토 면적은 23,375km²으로, 서쪽으로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북동쪽으로는 키로프주, 남동쪽으로 타타르스탄 공화국, 남쪽으로는 추바시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영토의 최대 동서 길이는 287km, 남북 길이는 50km이며, 수도 요시카르 올라(Yoshkar-Ola)는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862km 떨어져 있다.

마리 엘 공화국 국토의 57%는 삼림이며 농경지가 38.9%를 차지한다. 공화국 내에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476개의 강이 흐르는데, 주요 강으로는 불가강, 일레티강, 베틀루가강 등이 있다. 마리 엘 공화국에는 농업 및 임업 자원이 풍부하며, 이탄, 점토, 건축용 석재, 석회암, 유리용/규토용 모래, 생수 등과 같은 유용 광물 및 자원도 분포하고 있다.

마리 엘 공화국은 온난 대륙성 기후로 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 특징이다. 봄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평균 기온은 +10°C~12°C이다. 여름은 덥고 습기가 많으며 평균 기온은 +18°C~20°C이다. 가장 더운 7월 중순에는 +34°C~38°C까지 기온이 올라가기도 한다. 가을 평균 기온은 5°C, 1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 평균기온은 -18°C~19°C이다. 일년 중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마리 엘 사람들은 스키, 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긴다.

[그림 3] 마리 엘 공화국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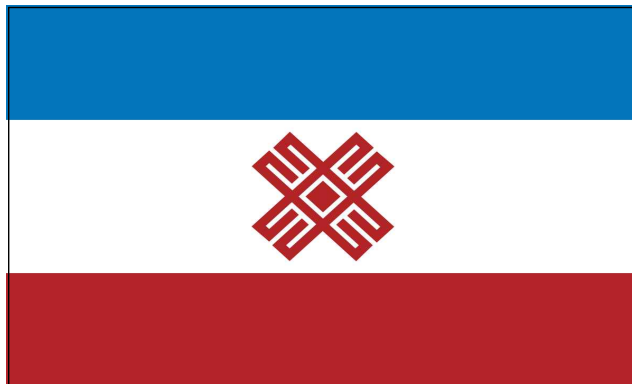


2)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MarieI03.png>
(검색일: 2018.01.16)

3. 국기³⁾

마리 엘 공화국의 국기는 소련 붕괴 이후 세 차례 바뀌었다. 1992년 9월 3일 처음 채택된 국기는 2006년 11월 28일 ‘국기 및 국장 개정안’에 따라 한 차례 바뀌었다. 그렇지만, 기존 국기의 왼쪽에 있던 국가 상징이 가운데로 이동했을 뿐,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 마리 엘 공화국의 국기는 여느 국기처럼 가로세로 2:3의 비율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위로부터 푸른색, 흰색, 붉은색이 3:4:3의 비율로 국기의 가로선을 이루고 있는데, 푸른색은 마리 엘 영토의 맑은 하늘과 물을 상징하고, 흰색은 마리인의 근면한 민족성과 생명,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며, 붉은색은 마리인의 정신을 나타낸다. 흰색 바탕 가운데는 마리인 전통 문양이자 풍요를 상징했던 붉은 색의 고대 상징이 새겨져 있다.

[그림 4] 2006~2011년까지의 마리 엘 공화국 국기⁴⁾



2011년 6월 1일 마리 엘 공화국의 국기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

3) https://ru.wikipedia.org/wiki/%D0%A4%D0%BB%D0%B0%D0%B3_%D0%9C%D0%B0%D1%80%D0%B8%D0%B9_%D0%AD%D0%B0 (검색일: 2018.1.16)

4) https://ru.wikipedia.org/wiki/%D0%A4%D0%BB%D0%B0%D0%B3_%D0%9C%D0%B0%D1%80%D0%B8%D0%B9_%D0%AD%D0%BB (검색일: 2018.1.16)

다. 2011년 1월 당시 마르켈로프 공화국 대통령이 새 국기 제정에 대해 제안했으며, 마리 엘 공화국 문장위원회에서 공화국의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국기 채택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새로 제정된 국기의 흰 바탕은 예로부터 마리인을 상징해왔던 전통적인 색상이자, 깨끗하고 선함, 그리고 공화국 사람들의 밝은 사상과 의지를 상징한다. 흰 바탕의 국기 좌측에는 붉은색의 전통문양이 세로로 새겨져 있고, 가운데는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곰이 왕관 테두리 안에 있다. 여기서 곰은 마리인을 비롯한 핀-우그르 민족이 과거 토렘으로 여겼던 여러 동물 중 하나이자, 숲의 주인이면서 수호자, 더 나아가 고대 마리인을 상징한다. 곰이 들고 있는 방패 가운데 새겨진 문양은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뜻하는 마리인의 고대 상징이며, 칼은 권력, 조국 수호에 대한 준비, 단호함 등을 뜻한다. 테두리 위의 황금 왕관은 국가 권력을 뜻하며, 삼지창 모양으로 나뉜 왕관의 세 갈래는 마리 엘 공화국의 대표적인 세 개 도시, 즉, 수도인 요시카르-올라, 볼스크, 코지모데미안스크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마리 엘 공화국의 첫음절인 M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5] 마리 엘 공화국의 현재 국기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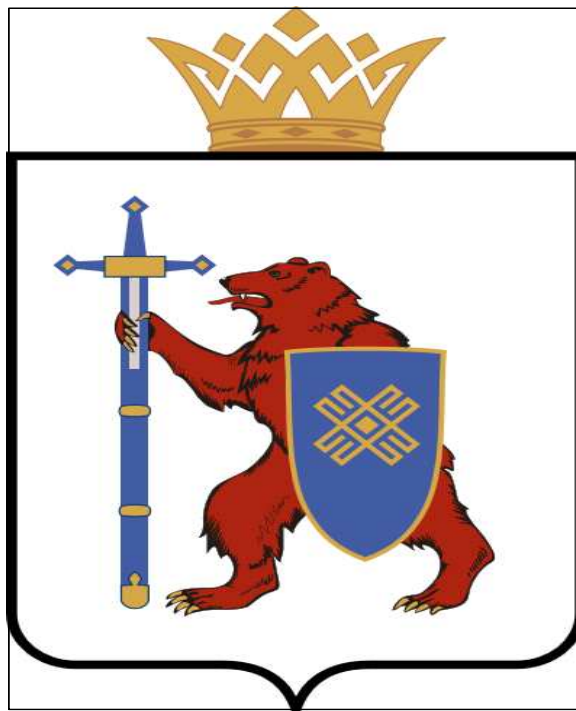
2011년 마리 엘 공화국 국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재탄생했지만, 러시아 연방 국립문장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5) <http://mari-el.gov.ru/republic/Pages/symbols.aspx> (검색일: 2018.01.16)

4. 국가문장

마리 엘 공화국의 국가문장은 공화국의 국기와 동일하다. 새로운 국기가 채택된 이후 같은 해 6월 8일 개정되었다.

[그림 6] 마리 엘 공화국의 현재 국가문장⁶⁾



6) <http://mari-el.gov.ru/republic/Pages/symbols.aspx> (검색일: 2018.01.16)

5. 역사

초기 철기시대 볼가강과 카마강 유역에서 거주했던 핀-우그르 계열의 민족 일부가 10세기 초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볼가강과 베틀루가강 사이로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마리인의 조상이다. 마리 민족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마리 땅 서쪽에 거주하는 ‘산지 마리인’이다. 두 번째는 볼가강과 바트카강 사이에 거주하는 ‘초지 마리인’으로 마리 민족 대부분이 이 그룹에 속한다. 마지막 그룹은 16~18세기 마리 땅 동쪽에 있는 바시코르토스탄과 우랄 산맥 근처로 이주해 정착한 ‘동부 마리인’이다. 산지 마리인은 나머지 두 그룹과 언어·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마리인은 핀-우그르 민족의 특징과 함께 몽골인종에서 볼 수 있는 요소도 섞여 있다. 전형적인 백인에 동양인의 특징이 조금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마리인은 과거 체레미스인으로 불렸고, 6세기에 처음으로 고트 역사가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리인은 5~8세기 지금의 타타르스탄 영토에 살던 고트족, 하자르족, 그리고 불가-불가르인 등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처럼 마리인은 볼가강 유역에 거주하는 튀르크계 민족(불가 불가르, 타타르, 추바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마리인의 민족 영토인 ‘마리-엘 공화국’이라는 이름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마리’라는 말은 마리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며, ‘엘’은 타타르어로 ‘민족,’ ‘땅,’ ‘제국’을 뜻한다. 다시 말해 ‘마리 엘’은 ‘(마리) 사람들의 땅’을 가리킨다.

862년 북유럽 출신의 류릭 3형제가 러시아 땅으로 진출한 이래, 이들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마리인도 슬라브 종족 또는 슬라브-핀 종족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키예프 루시가 발전하면서 마리인 역시 키예프 루시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키예프 루시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서부 마리인은 점차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슬라브화되었으며, 기독교 수용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마리 영토에서는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러시아가 13~15세기 몽골 타타르의 지배를 받았을 당시, 마리인은 킵차크한국(汗國, 금장 한국Golden Horde), 킵차크 한국의 분열 후에는 카잔한국(汗國)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1551년에는 불가강 우현에 사는 산악 마리인의 땅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1552년 모스크바 공국이 카잔한국을 정복하면서 초지 마리인도 러시아에 조공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마리인은 카잔 한국의 편에 서서 꽤 오랫동안 러시아에 맞서 싸웠다. 마리인은 1552~1557년과 1571~1574년, 1583~1585년 ‘체레미스 전쟁’이라 불릴 정도의 대규모 봉기를 잇달아 일으켰다. 마리인의 봉기는 민족 독립투쟁이었을 뿐 아니라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농민반란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약 30년간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러시아의 국경수비대가 상주할 수 있는 요새 도시들이 건설됐다. 예를 들면, 1583년에는 코지모데미얀스크가, 1584년에는 차레보코크샤이스크(수도 요시카르-올라)를 비롯하여 야란스크, 산추르스크 등이 건설됐다.

제정러시아 정부는 마리 땅을 동부로의 영토 확장 거점으로 삼았는데, 마리인은 러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여 크고 작은 봉기를 일으켰다. 특히 마리인은 러시아 정교도로 개종시키려던 러시아 정부의 시도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했다. 러시아 정부는 마리인이 숭배하는 사당을 폭파하는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마리인의 정교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는 역효과를 낳았다. 강제적인 정교화에 마리인은 모든 짐을 싸서 마을을 버리고 숲으로 떠났다. 이들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의 의무는 물론, 부역과 군 복무 역시 감당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리인은 정부에 반기를 든 푸가초프의 난에 대거 참여하게 됐다. 긴 저항과 강압의 시간을 지나 마리인은 러시아의 국민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18세기부터 마리어에 대한 학술 연구가 이뤄졌으며, 1872년 카잔사범학교이 문을 열면서 마리인을 포함한 불가 지역에 사는

여러 민족들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는 마리인 문화와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제정러시아 시기 마리인은 자신들의 국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카잔, 바트카, 코스트로마, 니제고로드, 우파, 페름주의 구성원으로 흩어져 살았다. 오늘날에도 마리인의 절반 정도가 마리 엘 공화국이 아닌,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1920년 11월 4일, 전(全) 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와 러시아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 소비에트 인민위원들의 결정에 의해 마리 자치주가 구성됐다. 1920년대에는 산악마리어와 초지마리어, 두 개의 평등한 문어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당시 다른 민족공화국에서처럼 민족 문화가 활발하게 발전했다. 1929년 7월 마리 자치주는 새로 형성된 니제고로드 변강주에 속하게 됐다. 그러나 1936년 12월 5일 이 변강주가 폐지되면서, 마리 자치주는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의 헌법에 따라 마리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정되었다. 대대적인 산업화 정책에 따라 1930년대 후반부터 마리 엘 공화국 안에 펄프-제지 공장이 생겨났다. 특히 볼스키구(區)(1939년 건설 당시 이름은 로파티노구(區))에 많은 기계제작 기업과 공장이 생기면서, 볼스키시는 수도인 요시카르-올라와 함께 공화국의 주요 공업 중심지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십만 명이 넘는 마리인이 전선으로 소집되어 나갔으며, 절반도 채 안 되는 사람만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시기 적군이 점령한 소련의 서쪽 지역으로부터 마리 영토로 이주한 사람들이 증가했다. 또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오데사 등에 있던 기업들도 마리 영토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외부 노동자의 수도 증가했다. 이 때 레닌그라드의 학술연구 센터들도 요시카르-올라로 이전했다. 대조국전쟁(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행된 5개년 계획으로 마리 엘 공화국에서는 기계제작 등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문화적으로 소비에트 시기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1972년 마리 공화국의 첫 대학인 마리국립대 설립을 들 수 있다.

1990년 12월 22일 마리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국가 주권에

대해 선언하고 새로운 국기, 국장, 국가(國歌)를 제정했다. 1992년 3월 22일, 마리 엘 공화국은 자치 주권에 대한 연방조약에 서명하고, 1992년 6월 8일, 오늘날의 마리 엘 공화국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공화국 정부는 수도인 요시카르-올라의 대대적인 도시 재건설을 시작하여, 차레보코크샤이스키 크레믈, 아르한겔스크 마을, 차이반 거리, 승리 거리 등 문화유산들을 재건했다.

[표 2] 마리엘 공화국 역사 연표

연도	주요 내용
6세기	체레미스인으로 문헌에 첫 등장
9세기	고유 영토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짐
13세기	몽골-타타르의 침입
13~15세기	킵차크한국, 카잔한국으로 편입
1552년	카잔한국의 멸망으로 러시아 복속
1552~1557년	1차 체레미스 전쟁
1571~1574년	2차 체레미스 전쟁
1583~1585년	3차 체레미스 전쟁
1773~1775년	푸가초프의 난 참여
1920. 11. 4.	마리 자치구 구성
1936. 12. 5.	마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정
1990. 12. 22.	국가 주권 선언
1992. 6. 8.	마리엘 공화국 성립

6. 정치

6.1 행정부

마리 엘 공화국의 행정부는 공화국 수반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 및 지방행정부로 구성됐다. 공화국 수반의 임기는 5년(2003년 6월 16일 개정, 이전 4년)이다.⁷⁾

6.1.1 대통령

[그림 7] 알렉산드르 옅스티페예프 마리 엘 공화국 수반⁸⁾



2017년 4월 6일 마리 엘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레오니드 이고리비치 마르켈로프(L.I. Markelov)가 뇌물 수령 혐의로 체포된 후 알렉산드르 알

7) 마리 엘 공화국 헌법 <http://parlament.mari.ru/title/const.html> (검색일: 2017.1.17)

8) 마리 엘 공화국 정부사이트 <http://mari-el.gov.ru/president/pages/biography.aspx> (검색일: 2017.1.22)

렉산드로비치 엡스티페예프(A.A. Evstifeev)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2017년 9월 10일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마리 엘 공화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1958년 5월 14일생으로, 우랄 지역 첼랴빈스크 주의 브레다 마을에서 태어났다. 학교 졸업 후 첼랴빈스크 주 관리부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던 그는 1980년에 스베르들롭스크법대(현재 우랄국립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우랄국립법학아카데미에서 러시아 특허권에 대한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박사)를 취득했으며, 2004년에는 러시아연방 정부 산하 재정아카데미도 졸업했다. 그는 1980~2000년까지 스베르들롭스크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우랄국립법대 사법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0~2002년에는 볼가 연방 관구의 대통령 전권 부대표를 맡았다. 2002~2004년까지 러시아연방연방회의 의회에서 야말-네네츠 자치구 행정부 대표를 맡는 동시에 법위원회 의장으로도 선출됐다. 2004~2012년 제9 상소재판소 의장 및 사라토프국립법학 아카데미 국제사법과 교수를 역임했다. 2014년 1월 3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의해 모스크바 주 중재위원회 의장 자리에 올랐다. 2017년 4월 6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마리 엘 공화국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었으며, 2017년 5월 19일 같은 해 9월에 있을 마리 엘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17년 9월 10일 88.27%의 득표율로 마리 엘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마리 엘 공화국 대통령은 유리 빅토로비치 자이체프(Юрий Викторович Зайцев)가 대행하고 있다. 그는 모스크바 주에서 태어났으며, 소련 국방부 군사 연구소에서 통역, 정보 및 분석 전문가 자격으로 외국어 학위를 취득하였다.

[표 3] 역대 마리 엘 공화국 정부수반⁹⁾

	대통령	임기	정당	
1	블라디슬라프 막시모비치 조틴 (V.M. Zotin)		1991.12.24 ~ 1997.01.14	공산당
2	바체슬라프 알렉산드로비치 키슬리친 (V.A. Kislitsin)		1997.01.14 ~ 2001.01.17	공산당
3	레오니드 이고리비치 마르켈로프 (L.I. Markelov)		2001.01.17 ~ 2017.04.06	자유민주당, 통합러시아당
4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엡스티페예프 (A.A. Evstifeev)		2017.4.6. ~ 현재	무소속

6.1.2 정부 부처

마리 엘 공화국의 정부부처는 소련 붕괴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일부 부서는 폐지되거나, 일부 부서는 새롭게 구성되기도 했다.

9) <https://ru.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8.1.22)

현재 공화국의 정부 부처 및 관련 행정기관은 [표 4]와 같다.

[표 4] 마리 엘 공화국 정부 부처¹⁰⁾

정부 부처	
국유재산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мущества)	보건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문화·출판·민족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печати и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산림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экологии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교육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교통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농림식품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사회발전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청소년·체육·관광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건설·건축·주택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рхитектуры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재정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산업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торговли)
내무·지방자치·사법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юстиции)	
행정부 기타 기관	
국립주택감독국 (Департ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жилищного надзора)	정보통신국 (Департамент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связи)
노동취업부 (Департамент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민방위위원회 (Комитет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и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
동물위원회 (Комитет ветеринарии)	관광위원회 (Комитет по туризму)

10) 마리 엘 공화국 행정부 <http://mari-el.gov.ru/pages/ministries.aspx>
(검색일: 2017.1.17)

6.2 입법부¹¹⁾

마리 엘 공화국의 입법기관은 국가회의로 총 5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26명은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되며, 26명은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된다. 2004년부터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졌다.

마리 엘 공화국 국가 회의는 제1기(1994~1996), 제2기(1996~2000), 제3기(2000~2004), 제4기(2004~2009), 제5기(2009~2014)를 거쳐 현재 제6기(2014~2019)까지 선출됐다. 제6기 국가회의 의원은 역시 총 52명으로, 이 중 46명이 통합러시아당에서, 4명이 공산당, 2명이 자유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마리 엘 공화국 국회 의장은 유리 알렉산드로비치 미나코프로 2000년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국가회의 위원들의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제1기에서만 러시아인(약 47%)과 마리인(약 43%)이 비슷한 비율로 선출됐으며, 이후 러시아인이 절

[그림 8] 마리 엘 공화국 국회 건물¹²⁾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6기 위원들의 경우, 마리인은 약 21%, 러시아인은 약 63%를 차지했다. 타타르인과 추바시인 출신 등 다른 민족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1) 마리 엘 공화국 국가회의의 <http://parlament.mari.ru/> (검색일 : 2017.1.17)

12)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Building_of_the_government_of_republic_of_Mary_El.jpg (검색일: 2017.1.22)

7. 경제

7.1 지역총생산

마리 엘 공화국은 러시아연방의 12개 경제관구 중 불가-바트카 경제관구에 속한다. 최근 공화국의 경제는 유례없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전체적으로 볼 때 마리 엘 공화국의 경제 규모는 크지 않다. 마리 엘 공화국의 지역 총생산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마리 엘 공화국의 지역 총생산 추이는 [표 5]와 같다. 마리 엘 공화국 총생산은 2006년에 전년 대비 가장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동일했다. 그렇지만, 이후 계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2000~2015 마리 엘 공화국 지역총생산¹³⁾

(단위: 백만 루블)

2000	2005	2010	2011	2015	2017	2019
11,207.6	33,350.7	82,374.5	97,323.3	165,531	169.5	177.7

[표 6] 2000~2015 마리 엘 공화국 1인당 지역내 총생산¹⁴⁾

(단위: 루블)

2000	2005	2011	2013	2015	2019
15,114.8	46,589.5	140,243.8	182,664.2	241,070.5	300,163

13) 마리엘 공화국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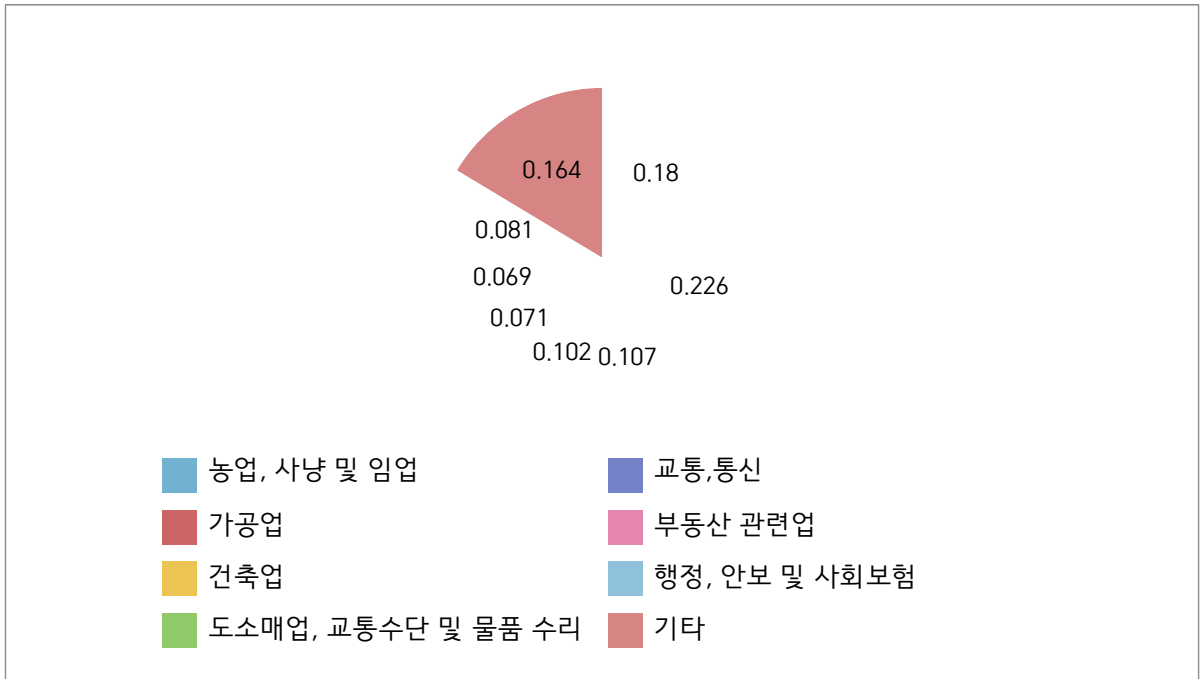
http://maristat.gks.ru/wps/wcm/connect/rosstat_ts/maristat/resources/915166804e8ce367850b977904886701/dinvrp-20170313.htm (검색일: 2017.1.17.)

14) 마리엘 공화국 통계청

http://maristat.gks.ru/wps/wcm/connect/rosstat_ts/maristat/resources/915166804e8ce367850b977904886701/dinvrp-20170313.htm (검색일: 2017.1.17.)

[그림 8]에서처럼 2014년 기준 지역 총생산을 구성하는 경제활동 분야로는 가공업(22.6%), 농업, 사냥 및 임업(18%), 건축(10.7%)이며, 이외 소매업, 교통수단 및 생활용품 수리 등이 차지하고 있다. 공업 분야에서 발달한 분야는 기계제작 및 설비, 금속 가공, 임업 및 제지업이다. 마리 엘 공화국의 산업 중심지는 공화국 수도 요시카르-올라와 볼스크이다. 농업 분야에서 가장 발달한 분야는 농업(호밀, 보리, 밀, 귀리와 같은 곡물, 감자, 채소 경작, 그리고 사료용 곡물, 아마, 호프 등의 경작)이며, 소, 돼지, 양, 주금류, 염소 등의 사육에 바탕을 둔 축산업 역시 발달해 있다.

[그림 9] 마리 엘 공화국 부문별 생산구조¹⁵⁾



마리 엘 공화국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의미는 미약하지만, 공화국 경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가격 상승 속도는 전년 대

15)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субъектов РФ. 2016.

비 -7.1%였으며, 평균 월급은 4.1% 상승하여 23,232루블이었다. 반면, 등록된 실업자 수는 0.1% 줄어들었다.¹⁶⁾

마리 엘 공화국의 경제 발전 정책에 힘입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중소기업의 수는 11,000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중소기업의 생산량 역시 10% 증가하여 164십억 루블에 달했다. 공화국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생산시설 도입 및 생산시설 현대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마리 엘 공화국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마리 엘 공화국에 대한 연방예산은 2015년 4,016백만 루블에서 2016년 4,416백만 루블로, 110% 상승했으며, 마리 엘 공화국은 연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16개 국가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¹⁷⁾

7.2 대외교역

마리 엘 공화국의 대외 무역의 경우 2017년 총 414.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총 78개국과 교역을 하였다. 이 중 수출은 338.8백만 달러, 수입은 75.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구조를 보면 기계 제작 분야가 4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부문으로 15.9%를 보여준다. 수출은 연료 에너지 생산품이 6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제지 분야가 14.1%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라트비아가 가장 높은 43.5%, 두 번째가 벨라루스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중국이 15.1%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가 12.7%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16)

<https://www.marpravda.ru/news/sociym/ministerstvo-ekonomicheskogo-razvitiya-i-torgovli-mariy-el-podgotovilo-doklad-ob-itogakh-sotsialno-e/>
(검색일: 2018.1.20.)

17)

<https://www.marpravda.ru/news/sociym/ministerstvo-ekonomicheskogo-razvitiya-i-torgovli-mariy-el-podgotovilo-doklad-ob-itogakh-sotsialno-e/>
(검색일: 2018.1.20.)

[표 7. 마리 엘 공화국 수출입 구조]

순위	수출항목	비중%	순위	수입항목	비중%
1	연료 및 에너지 제품	67.8	1	엔지니어링 제품	48.1
2	목재, 펄프, 종이	14.1	2	식품 및 원자재	15.9
3	엔지니어링 제품	11.3	3	화학 제품	15.3
4	식품 및 원자재	3.8	4	금속 제품	14.5
5	금속 제품	1.7	5	목재, 펄프, 종이	2.1
6	기타상품	1.3	6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9
7	-	-	7	섬유 제품	1.1
8	-	-	8	기타 상품	1.1

[표 8. 마리 엘 공화국 주요 교역 10개국(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국	비중%	순위	수입국	비중%
1	라트비아	43.5	1	중국	15.1
2	벨라루스	9.5	2	네덜란드	12.7
3	에스토니아	8.1	3	독일	10.7
4	벨기에	4.7	4	벨라루스	10.4
5	네덜란드	4.5	5	핀란드	7.6
6	카자흐스탄	4.3	6	이탈리아	7.3
7	독일	3.2	7	덴마크	4.8
8	중국	2.1	8	프랑스	3.2
9	우크라이나	2.0	9	스위스	2.7
10	핀란드	2.0	10	라트비아	2.6
-	기타	16.1	-	기타	22.9

7.3 인프라

자동차와 철로, 석유 수송관과 가스 수송관, 강을 이용한 내륙운하가 공화국 전체에서 발달해 있다. 마리 엘 공화국의 철도는 202km에 달하며, 주요 철도로는 고리코보 철로로 요시카르-올라-젤론니 돌(타타르스탄)을 잇는 구간, 요시카르-올라와 야란스크(키로프주)를 이어주는 구간,볼스크-

젤론니 돌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젤론니 돌에서 요시카르-올라까지 가는 노선은 1927년부터 가동되었으며, 1944년 누지알라 역까지 노선이 확장됐다. 주요 역은 요시카르-올라, 볼스크, 타바시노이다.

공화국의 주요 교통 간선으로는 요카르-올라—젤레노돌스크(A-397), 바트카(A-119)와 체복사리(추바시 공화국)를 통하는 도로, 체복사리와 카잔(타타르스탄)을 이어주는 자동차 도로가 있다. 고속버스 노선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 노보고로드, 울리야노프, 키로프와 같은 인근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여러 지역과 카잔, 우파(바시코르토스탄) 등 인근 공화국과 연결된다. 볼가강과 베틀루가강이 인근에 있는 만큼, 수로 역시 발달해 있다. 공화국 전체 수로 길이는 335km로, 수로를 통한 기본적인 승객 및 화물 이동은 코즈모데미얀스크항에서 이루어진다.

마리 엘 공화국에는 철로, 도로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운반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이 발달되어 있다 먼저 가스관을 살펴보면 툴라-페름-니즈니 노보고로드선, 얄부르크(야말-네네츠 자치구)-엘레츠(리페츠크주)선, 우렌고이(야말-네네츠 자치구)-센터선, 얄부르크-툴라선이다. 송유관으로는 수르구트(한티-만시 자치구)-폴로츠크(벨라루스)선을 들 수 있다.

마리 엘 공화국 영토 내 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전자 통신, 전화, 방송 서비스와 네트워크, 무선통신, 텔레비전과 우편통신 등이며, 2000년대 이후 전화 및 네트워크 통신이 발전하고 있다.¹⁹⁾ 2001년 마리 엘 공화국의 상업적인 통신 표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 마리 엘 공화국에서 첫 번째로 네트워크 통신 서비스 운용을 시행한 곳은 ‘볼가 텔레콤’이다. 이로 인해 전화선과 인터넷선과의 통신이 가능하게 됐으며, 특히 시골지역에서도 학교 및 도서관 등에

18) KIET 홈페이지 “마리엘 공화국의 투자 잠재력에 대한 분석”
<http://www.kiet.go.kr/servlet/isearch>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id.ru/>
 (검색일 : 2008.5.31)

19) KIET 홈페이지 “마리엘 공화국의 투자잠재력에 대한 분석”
<http://www.kiet.go.kr/servlet/isearch>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id.ru/>
 (검색일 : 2008.5.31)

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8. 사회

8.1 수도²⁰⁾

마리 엘 공화국의 수도는 요시카르-올라(Yoshkar-Ola)로, 마리어로 ‘붉은 도시’라는 뜻이다. 16세기 중반까지 이 영토는 카잔한국에 속해 있었으며, 마리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1552년 10월 이반 4세(폭군 이반)이 카잔한국을 함락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도 러시아에 충성을 바치는 맹세를 해야 했다. 그렇지만 곧 러시아의 지배와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으며, 1553년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는 이후 일어나는 체레미스 전쟁의 시초가 됐다. 연달아 봉기가 일어나면서, 1584년 표도르 이바노비치(Feodor Ivanovich)는 이곳에 요새도시를 건설했다. 이것이 오늘날 요시카르-올라의 시초가 된 것이다. 당시 이름은 차레보콕샤이스크로, ‘콕샤강(볼가강의 좌측 지류)의 차르 도시’란 의미다. 당시 차레보콕샤이스크는 네 면을 목재 벽을 세워 흙으로 독을 만든, 당시 전형적인 요새 형태였다. 요새 안에 수공업자, 무역상, 농민 등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점차 거주민이 증가하면서 도시 경계도 점차 확장됐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호프 경작, 모피업, 임업, 증류업 등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에서 온 무역상과 수공업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주민 대부분은 군인들이었다.

20) 요시카르-올라 시정부 사이트 <http://i-ola.ru> (검색일: 2017.1.20.)

[그림 11] 요시카르-올라²¹⁾

차레보콕샤이스크는 오랫동안 군사행정 도시로 남아 있었다. 도시는 군사령관이 지배했다. 군사령관이 법적인 업무까지 맡았으며, 마리 주민들로부터 조공을 모았다. 러시아 사수병과 공무원들이 상주하여 지역주민의 잦은 봉기나 소요를 억압했다. 1609년에는 마리인, 추바시인, 타타르인, 러시아인 등 불가강과 바트카 주변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차레보콕샤이스크를 함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중앙 정부에 저항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폴란드가 모스크바를 점령하자, 쿠지마 미닌과 드미트리 포자르스키가 구성한 국민군에 참여했으며, 돈 강과 칼므키 스텝 지역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

1708년 표트르 1세의 칙령에 따라 차레보콕샤이스크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아스트라한까지 이르는 모든 불가 지역과 동일하게 카잔 현에 소속됐다. 1775년 중부 불가 지역만 카잔현에 들어가면서 차레보콕샤이스크는 새로 편성된 카잔현의 중심지가 됐다. 18세기 차레보콕샤이스크 풍경은 여러 차례 변화했다. 석조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다섯 개의 교회(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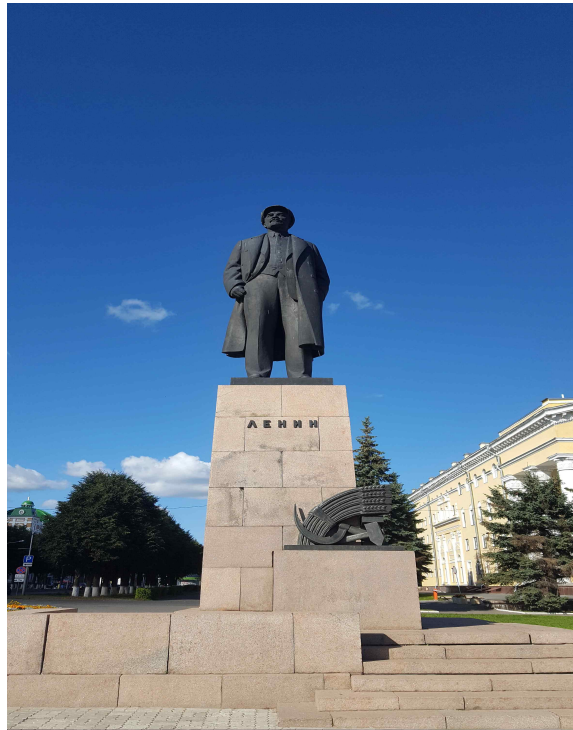
21) 김혜진 촬영

이츠카야, 브호도-예루살림스카야, 보즈네센스카야, 보스크레센스키 사보르, 티흐빈스카야)가 건설됐다. 이 중 보스크레센스키 교회에는 국고가 보관됐다. 이와 함께 경찰서와 감옥도 설치됐다. 이 시기 마리 지역의 첫 번째 기업이 등장했으며, 알렉산드로-엘리자베타 시장이 열렸다.

19세기 이곳은 여전히 인구 2천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지만, 마리 변경주의 교역-경제 중심지이자 문화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부터 차레보콕샤이스크는 정치 유형지가 되어, 1863년 폴란드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끌려왔다. 점차 차레보콕샤이스크는 카잔을 앞지를 정도로 중등교육 면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발전이 미약했다. 19세기 말에서야 70명이 일하는 작은 증류 공장이 세워졌다.

이처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조용한 지방 도시였을 뿐이었다. 거리는 13개에 불과했으며, 건물의 수도 300개 정도였다. 이 도시의 주요 경제 분야는 농업이었고,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1920년대까지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됐다. 1919년 2월에 차레보콕샤이스크는 크라스노콕샤이스크(콕샤가 강의 붉은 도시)로 개명되었고, 바트카 주에 소속됐다. 1920년에 마리 자치주 구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크라스노콕샤이스크는 마리 자치주의 중심지가 됐다. 다른 한 편으로, 이곳은 1918~1920년 러시아 내전 당시 소비에트 세력에 반대하는 백군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1928년에 크라스노콕샤이스크는 마리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요시카르-올라’(붉은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1936년 마리 자치주가 마리 자치 공화국으로 승격하면서 요시카르-올라는 공화국의 수도가 됐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엔 있던 여러 공장들이 요시카르-올라로 옮겨왔으며, 이는 이 지역 산업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 도시는 점차 남쪽과 서쪽으로 확장됐다. 도시 경제 성장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젤레노돌스크(타타르스탄)에서 고전압선과 가스관이 들어온 것이었다.

[그림 12] 레닌 동상²²⁾

1950~60년대 인스티투츠키야 거리(오늘날 레닌대로)를 따라 도시 중심지 개발이 이뤄졌다. 요시카르-올라의 중심지가 된 이 거리를 따라 시청, 공공기관, 호텔 ‘요시카르-올라’ 등이 지어졌다. 1970~80년대에는 요시카르-올라의 대규모 도시계획이 시행되었다. 이때 콕샤가 강의 좌현이 개발되었다. 도시 역사에서 기억할만한 것 중의 하나는 도시 건설 400년이 되는 1984년에 경제 및 문화 건설에 성공한 공헌에 대해 ‘노동 붉은 깃발’ 훈장을 받았다. 또한, 1990년에는 역사적인 건물(보즈네센스크 교회, 티흐빈스크 교회 등)들이 잘 보존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러시아의 역사적인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수도에서는 기계 제조와 자동차 제조공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으며, 마리국립대학(마르구, MarGU), 각종 연구소 등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들이 생겨났다.

22) 김혜진 촬영

오랫동안 옛 모습을 간직했던 요시카르-올라는 2003년 본격적인 도시 재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도시 사회경제 발전 5개년 프로그램 ‘스톨리차’(수도)는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을 위해 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몇 안 되지만 보존되어 있는 건물과 교회의 복원 작업이 진행됐으며, 새로운 주택들도 다수 건설됐다. 2006년에는 또다시 2015년까지의 요시카르-올라 사회경제 발전 전략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2009년에는 2025년까지의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요시카르-올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이 결과 2010년 7월에는 러시아 역사도시 목록에서 제외됐다.

2017년 기준 요시카르-올라에는 약 2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리 엘 공화국의 교육과 산업의 중심지이다. 요시카르-올라 인구 중 68%가 러시아인, 24%가 마리인이다.

[그림 13] 2009년 요시카르-올라 건립 4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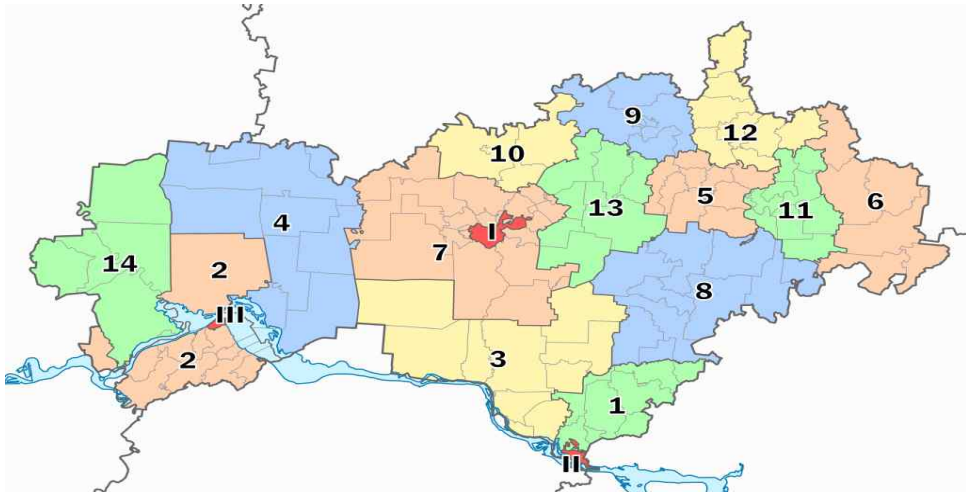
8.2 행정구역

23)

[https://ru.wikipedia.org/wiki/%D0%99%D0%BE%D1%88%D0%BA%D0%B0%D1%80-%D0%9E%D0%BB%D0%B0#/media/File:The_population_of_Yoshkar-Ola_on_City_Day_\(August,_8th,_2009\).JPG](https://ru.wikipedia.org/wiki/%D0%99%D0%BE%D1%88%D0%BA%D0%B0%D1%80-%D0%9E%D0%BB%D0%B0#/media/File:The_population_of_Yoshkar-Ola_on_City_Day_(August,_8th,_2009).JPG) (검색일: 2018.1.22)

마리 엘 공화국의 행정구역은 현재 [그림 13]에서처럼 크게 3개의 도시, 14개의 자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시 16개의 도시형 마을과 105개의 농촌 마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4] 마리 엘 공화국 행정구역(도시 & 자치군)



도시					
I	요시카르-올라	II	볼스크	III	코지모데미안스크
군(자치군)					
1	볼스키 군	2	고르노마리츠키 군	3	즈베니콥스키 군
4	킬레마르츠키 군	5	쿠제네르츠키 군	6	마리-투렉츠키 군
7	메드베덱스키 군	8	모르킨스키 군	9	노보토르얄스키 군
10	오르샨스키 군	11	파란긴스키 군	12	세르누르츠키 군
13	소베츠키 군	14	유린스키 군		

[표 7] 인구 2천 명 이상 거주지역

지명	인구	지역명	인구
요시카르-올라	266,675	볼스크	54,519
코지모데미안스크	20,327	메드베데보	18,527
즈베니고보	11,379	소베츠키	10,498
모르키	9,142	세르누르	8,300
시묘노프카	6,751	크라스노고르스키	6,240
오르샨카	6,064	노비 토르얄	5,940
파란가	5,432	쿠제네르	4,973
마리-투레크	4,466	크로스노악타브리스키	4,377
킬레마리	3,999	프리볼스키	3,955
루엠	3,355	수로크	2,970
유리노	2,984	수슬론게르	2,882
즈나멘스키	2,822	셀란게르	2,293
실리카트니	2,102	포마리	2,014

8.3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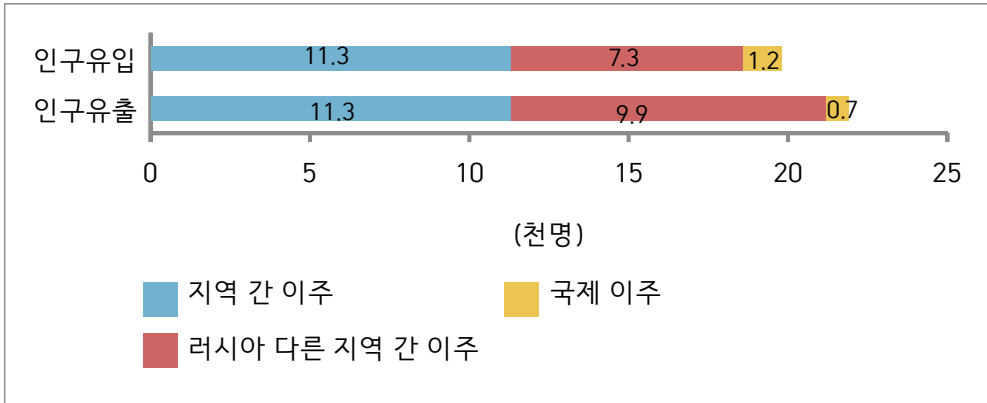
마리 엘 공화국의 인구는 2017년 기준 684,684명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속한다. 인구밀도는 km²당 약 30명으로 높지 않다. 약 66%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표 8].²⁴⁾ 공화국 인구는 1998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주로 인구 유출에서 기인한다. 자연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에는 -6.7를 기록했던 자연 인구증가율은 2010년에는 -2.5, 2011년에는 -1.1이었다가, 2012년 0.5로 2012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폭은 1 이하로 그리 높지 않다. 2015년 자연 인구증가율은 0.6이었다. 반면, 인구 유출은 주로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마리 엘 공화국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훨씬 많은 편이며,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다[표 9].

[표 8] 2016년 1월 기준 마리 엘 공화국 인구 구분²⁵⁾

24) <http://ru.wikipedia.org/> (검색일: 2017.1.20)

전체 인구수	구분	
	685,900명	도시 인구
449,500명		236,400명
남성		여성
319,600명		366,300명

[표 9] 인구 유출 및 유입 추이



여러 사회학적 수치를 기반으로, 마리 엘 공화국의 사회 수준을 보자면, [표 10]과 같다.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평균 월급과 연금, 1인당 수입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수, 그리고 의사 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이는 공화국 정부에서 추구하는 복지정책이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국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0] 여러 사회지수 추이²⁶⁾

25)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субъектов РФ. 2016.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업률(%)	10	10.5	10.1	6.5	5.2	4.8	5.3
평균월급 (루블)	4,938	12,651	14,001	16,023	18,360	20,473	21,947
평균연금 (루블)	2,271	6,729	7,326	8,107	8,880	9,645	10,699
평균수입 (루블)	3,376	10,336	11,328	12,532	14,517	16,375	18,533
평균소비 (루블)	2,377	7,228	8,354	9,304	10,509	11,852	12,399
1인당 평균 거주공간(m ²)	20.7	22.4	22.7	23.2	23.5	24.0	24.7
일반 교육 기관 수	349	281	273	270	268	265	255
의사 수	2,400	2,300	2,400	2,400	2,400	2,400	2,400
의료기관 수	55	33	34	31	31	30	30

8.4 민족

마리 엘 공화국은 마리인의 고유 영토지만, 마리인이 공화국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인과 마리인의 인구비율은 비슷하지만, 러시아인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2010년 러시아 총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리 엘 공화국의 인구 중 러시아인은 45.1%로 소비에트 시기와 2000년 초반까지도 47% 이상인 것에 비하면 약간 줄어들었다. 러시아인은 공화국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인 요시카르-올라와 볼스크, 그리고 요시카르-올라 인근 지역과 공화국 서쪽에 러시아인 인구가 모여 있다.

반면, 마리인은 공화국의 인구의 약 42%로, 농촌 지역에 대거 거주하고 있다. 마리인은 세 그룹으로 나뉜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초지 마리인, 산악 마리인, 그리고 마리 엘 공화국 밖에 거주하는 동부 마리인이 있다.

26)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субъектов РФ. 2016.

세 그룹은 언어와 전통문화가 조금씩 다르다. 이 중 산악 마리인은 인구의 3.5%에 불과하며, 고르노마리스크 군에 주로 살고 있다. 총 56만 명의 마리인 중 약 삼십만 명이 마리 엘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예를 들면, 바시코트로스탄, 키로프 주, 스베르들롭스크 주, 타타르스탄 등에도 퍼져 살고 있다. 러시아 외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지에도 일부 마리인이 살고 있다.

인근 민족인 타타르인이 공화국 인구의 5.5%, 추바시인이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민족으로는 우크라이나인, 우드무르트인, 벨라루스인, 모르드바인,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등이 있다. 추바시 공화국과 맞닿아 있는 공화국 남쪽의 즈베니굽스키 군에는 추바시인 마을이 일부 형성되어 있다.

[그림 15] 마리인의 세 그룹을 형상화한 동상²⁷⁾



8.5 교육

마리 엘 공화국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으로는 불가국립공대, 마리국립대

27) 김혜진 촬영

를 들 수 있다. 마리 엘 공화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인 불가국립공대는 1932년 요시카르-올라에서 문을 연 이래, 공화국의 가장 큰 학술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불가국립공대는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설립 시기부터 1968년까지는 고리키볼가임업기술대였으며, 1968~1982년까지는 고리키마리종합기술대, 1982~1995년까지는 고리키마리민족우호기술대, 1995~2012년까지는 마리국립공대, 2012년부터는 현재 이름인 불가국립공대로 바뀌었다. 이 대학에는 현재 9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독일, 중국 등 해외 여러 대학 및 학술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16] 불가국립공대 로고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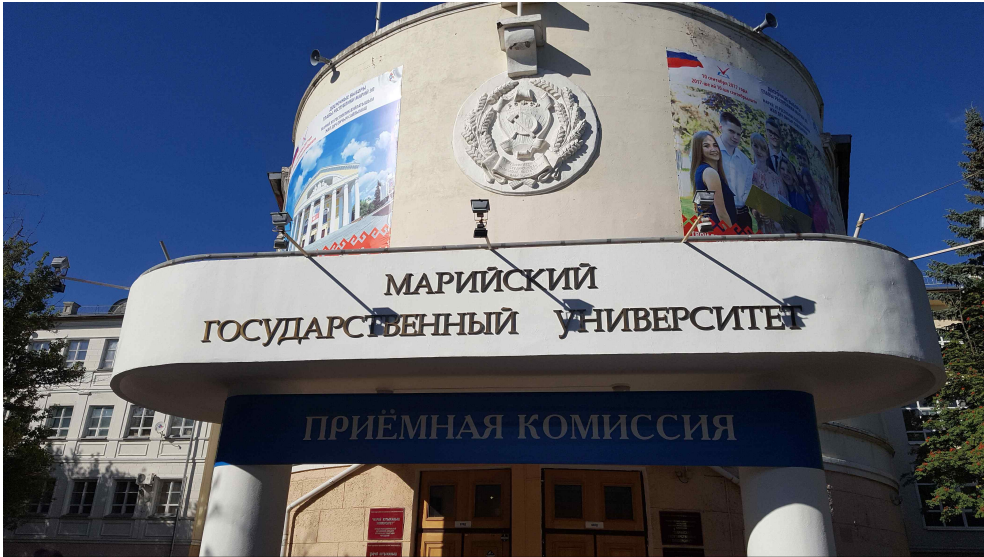
마리국립대(마르구) 역시 요시카르-올라에 있으며, 1971년 설립됐다. 1931년 설립됐던 마리국립사범대가 2008년에 마리국립대로 편입됐다. 마리국립대에는 외국어학부, 역사-어문학부, 심리-사범학부, 일반 및 전문교육학부, 물리-수학학부, 체육-관광학부, 법학부, 의대, 전기에너지학부가

28)

<http://www.volgatech.net/upload/medialibrary/b49/b493cedel1ce47c443c5409ceb3006600.png> (검색일: 2018.1.23)

개설되어 있으며, 마리국립대 산하에는 농업기술연구소, 자연과학-약학연구소, 민족문화 및 문화커뮤니케이션연구소, 경제 및 경영연구소, 사범대가 있다. 현재 약 8천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그림 17] 마리국립대²⁹⁾



29) 김혜진 촬영

9. 문화

9.1 언어

마리 엘 공화국에는 50개의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와 마리어이다. 마리어는 핀-우그르 어족(어족) 중 불가-핀란드 그룹에 속한다. 마리어는 민족 그룹에 따라 초지 마리어와 산악 마리어로 나뉜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인과 마리인의 인구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언어 구사능력으로 보면 마리어를 구사하는 인구는 훨씬 적은 편이다.

소련 붕괴 이후로 민족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2000대 초반 일반 국립 및 사립학교에서 마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초지 마리어의 경우, 1990년에 18,944명에서 2000년 59,154명으로, 산악 마리어의 경우는 1990년 3,155명에서 2000년 4,267명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중후반 마리어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는데, 이는 마리어를 학습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2004년 기준 초지 마리어는 34,686명, 산악 마리어는 3,162명의 학생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 엘 공화국 정부는 마리어 수업을 배정하는 등 마리어 교육 증진에 힘쓰고 있다.

9.2 전통문화

9.2.1 전통의상

마리 남성의 전통의상은 일자 모양의 긴 셔츠인 투비르와 올라시라 불리는 바지로 구성된다. 허리띠나 ‘솔리크’라 불리는 수건이나 천으로

30) 위키 마리엘

허리 부분을 묶는다. 마리 남성 의상은 주로 단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축제 의상의 경우, 목 부분이나 소매 부분, 셔츠 끝단 등에 자수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마리 남성은 보통 좁은 테두리의 양털 모자를 썼는데,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는 망을 두른 '나코마르니크'라는 특수한 모자를 쓴다. 이는 각종 벌레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용도에 따라 짚신, 가죽신, 펠트 장화를 신으며, 강가나 소택지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신발 아래에 나무 받침대를 붙여 이동하기 편하게 했다.

[그림 18] 마리 전통남녀의상³¹⁾



마리 여성의 전통의상은 기본적으로 긴 셔츠와 치마, 그리고 그 위에 덧입는 앞치마로 구성된다. 마리 여성의 전통의상은 화려한 장신구들이 특징이다. 마리 여성은 각양각색의 구슬과 조개껍질, 동전, 금은박 등으로 만든 장신구를 허리, 가슴, 목, 귀 등에 매거나 걸어 늘어뜨린다. 이와 같은 장신구는 인근 민족들(모르드바인, 우드무르트인 등)의 여성 의상과도 유사하다. 마리 여성들은 반지와 팔찌 등도 즐겨 착용한다.

31) 김혜진 촬영

[그림 19] 마리 여성의 전통 장신구³²⁾

마리 여성의 모자는 다양한데, 기혼 여성은 크게 시막시, 소로카, 샤르판과 같은 머리장식을 사용한다. 시막시는 원추형의 모자로 뒷부분에 넓고 평평한 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로카는 러시아인에게서 차용된 것으로 뿔 모양의 모자이며, 샤르판은 반원 형태의 앞차양이 달린 머릿수건을 말한다.

9.2.2 전통음식

대표적인 마리 음식은 3단으로 된 팬케이크인 ‘코만 멜나’이다. 마리 여성들은 세 개의 두꺼운 블린(팬케이크)을 구워 삼층으로 쌓아올린다. 블린은 일반 후라이팬 모양 정도의 크기에 2mm 정도 되는 두께인데, 층마다 각기 다른 재료로 굽는다. 첫 번째 블린은 호밀이나 밀가루에 달걀과 소금을 넣어 굽는다. 두 번째 블린은 귀리나 체질하고 남은 거친 곡물가루에 우유와 발효한 우유크림인 스메타나를 넣어 굽는다. 구운

32) 김혜진 촬영

블린은 붉은색을 띠기 전까지 약한 불이 있는 곳에 둔다. 그 후에 귀리가루에 아직 굳지 않은 신 우유나 발효시킨 산유 등을 섞어 걸쭉해진 크림을 발라준다. 그다음 다시 약한 불 위에 놓는다. 이때 귀리가루로 만든 세 번째 블린을 굽는다. 굽기 전에 반죽을 스메타나에 8-10시간 정도 담가 두는 것이 독특하다. 세 번째 블린을 구워서 버터나 녹인 버터를 발라 올린다. 마리 여성들은 이렇게 완성된 코만 멜나를 통째로 내놓거나 먹기 좋게 조각으로 잘라서 내놓는다.

[그림 20] 코만 멜나³³⁾



9.2.3 전통가옥

마리 전통가옥은 사각형의 통나무 구조물로, 지붕은 두 개의 경사면으로 이뤄진다. 전통가옥은 크게 주거용과 헛간 및 창고로 나눌 수 있다. 가옥 내부의 중심은 러시아식 벽난로이며, 부엌은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다. 현관을 따라 옆 벽면에는 침대를 겸용하는 긴 의자들이 놓여

33) 김혜진 촬영

있으며, 입구의 반대쪽 구석에는 가족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탁과 이콘을 놓을 수 있는 선반, 찬장이 있다. 카마 강 유역의 동부 마리인은 타타르인에게서 영향을 받아 현관 벽 옆에 넓은 판자 침상을 놓고 커튼 같은 긴 천을 사용하여 부엌과 나머지 공간을 구분한다.

[그림 21] 마리 전통가옥 구조³⁴⁾



마리 전통가옥에서 독특한 점은 ‘쿠도’(Кудо)라고 불리는 여름용 부엌이 있다는 것이다. 더운 여름에는 가옥 안이 아닌 ‘쿠도’라는 별도의 가옥에서 요리도 하고, 겨울내 한곳에 모여 생활하던 가족 구성원들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넓게 공간을 쓰기 위해서이다. 쿠도는 일반 전통가옥과 같은 통나무 구조물로, 굴뚝이 따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마리인은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처럼 바닥에 진흙을 바르거나 나무를 대지 않고 흙바닥 그대로 두는데, 이는 집안에 화덕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이다. 마리인은 유목민족들의 이동식 텐트에서처럼 쿠도의 가운데에 구덩이를 파 화덕을 만들어 놓는다. 화덕 위에는 향시 음식이 담긴 솥이나 큰 냄비를

34) 김혜진 촬영

걸어 두며, 불을 땔 때 생기는 연기는 천장의 구멍을 통해서 나간다. 쿠도에도 역시 헛간, 마차 차고, 가축우리, 목욕실이 딸려 있다.

[그림 22] 마리 여름 가옥의 모습³⁵⁾



9.2.4 전통신앙

마리인의 고대 신앙은 나무와 숲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는 마리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류 창조 신화에서 비롯됐다. 고대 마리인이 섬겼던 많은 신 가운데 최고 신은 ‘유모’이다. 어느 날 유모는 자신의 딸 ‘유민뉴디르’를 실크 계단을 따라 땅으로 내려보냈다. 유민뉴디르는 아버지의 명으로 땅에 내려와 가축을 키우고 있었는데,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샘 근처에서 아름다운 청년 ‘마리’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곧 사랑에 빠졌지만, 신과 인간이라는 신분 차이는 이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민뉴디르는 마리에게 자신을 납치하라고 제안했다. 이 사실을 안 유모는 격노하여 흉년과 기아와 죽음을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3년 후 딸 부부가 아들을 낳고 유모를 찾아오자 유모는 이들을 용서해 주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마리인의 시조이다. 그런데

35) <http://www.finnougoria.ru/> (검색일: 2015.3.20)

유모의 남동생 케레메트가 마리에 대한 시기심에 눈이 멀어 마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땅에 내팽겨 쳤는데, 마리의 찢겨진 몸이 떨어진 곳에서 자작나무와 참나무가 자라났다.

마리인이 나무와 숲을 숭배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신화에서 비롯됐다. 마리인은 참나무와 자작나무, 보리수를 성스러운 나무로 생각하며, 나무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도와 염원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믿는다. 마리인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가족이 숭배하는 일종의 ‘가족 나무’도 가지고 있다. 고대 씨족공동체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테베)가 함께 숭배하는 나무도 있다.

[그림 23] 마리 전통제례 모습³⁶⁾



1990년대 토속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무수히 생겨나면서, 마리 전통신앙은 나름의 규율과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자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해야 하고, 일 년에 한 번 이상은 단체 기도나 가족 기도에 참여해야 하며, 평생 적어도 일곱 번은 신성한 숲에 가서 제물을 바치며

36) 김혜진 촬영

가족 기도를 해야 한다. 신자들은 도둑질과 살인, 절도를 해서는 안 되며,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싸워서도 안 된다. 나쁜 것을 생각하거나 원해서도 안 된다. 신성한 숲에 기도를 드리기 일주일 전에는 음주나 흡연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정결한 몸으로 제에 참석해야 한다. 제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동안은 깨끗한 정신과 몸을 유지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도 개인과 가족, 또는 온 동네가 함께 모여 신성한 숲에서 제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성한 숲은 모든 마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리인은 파종과 수확 후에 신성한 숲을 찾아가 음식을 올리고 기도한다. 이때 바치는 음식은 보통 가축으로 다리와 내장은 나무와 숲에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요리한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불에 태워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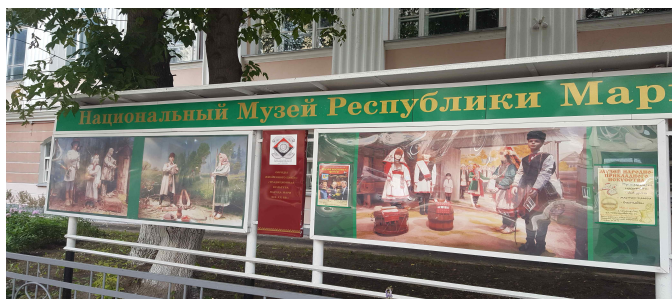
9.3 문화

9.3.1 박물관 및 미술관

마리 엘 공화국에는 여러 개의 박물관이 있다. 대부분 요시카르-올라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흥미로운 박물관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박물관은 마리국립박물관이다. 마리 엘 공화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국립박물관은 1920년에 건립되었는데, 애초 구치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됐다. 이후 이 건물은 노동자 예비대학으로 사용되기도 했다.³⁷⁾ 이 박물관은 박물관의 설립자이자 민속학자였으며 소장직을 맡았던 티모페이 엡세예프의 이름을 따르고 있다. 박물관 전시관에는 무려 200,000만 점의 예술작품이 전시되어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리 전통 의식주와 관련된 전시품을 비롯하여, 장식품, 무기 등을 포함한 고고학과 민속학 관련 작품이다.

37) 마리 엘 공화국 홈페이지 <http://gov.mari.ru/matour/rus/culture/>
(검색일 : 2008.6.1)

[그림 24] 마리 엘 국립박물관 정문 모습³⁸⁾



공화국에서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는 마리국립미술관이다. 2007년 11월에 개관한 마리국립미술관은 공화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이라는 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외관에 아름다운 시계탑이 있어 요시카르-올라 도시 건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물관은 차레보콕샤이스크의 첫 번째 사령관인 오볼렌스크-노고트포프의 이름을 따라 지은 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르네상스 스타일로 지어진 박물관 외벽에는 체코 프라하의 천문시계탑과 유사하게 생긴 시계탑이 있다. 정시마다 종이 울리고 시계탑 안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밖으로 나와 천천히 돌면서 행인들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이 박물관에는 마리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러시아 다른 미술관의 작품 전시나 개인전이 열린다.

[그림 25] 마리 엘 공화국 국립미술관 전경³⁹⁾



38) 김혜진 촬영

39) 김혜진 촬영

이외에도 굴락박물관, 요시 카르-올라 도시역사박물관부터 치즈박물관 까지 다양한 박물관이 요시카르-올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화국의 각 도시와 농촌 지역에도 저마다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박물관을 요약해 본다면, [표 11]과 같다.

[표 11] 마리 엘 공화국 박물관 및 미술관

이름	위치	이름	위치
마리국립박물관	요시카르-올라	야외 민속학박물관	코즈모데미안스크
마리국립미술관	요시카르-올라	문화역사박물관단지	코즈모데미안스크
요시카르-올라 도시역사박물관	요시카르-올라	산악 마리 민속박물관	코즈모데미안스크
민족응용예술 박물관	요시카르-올라	초지 마리 민속박물관	알료슈키노
조형예술미술관	요시카르-올라	세르누르 역사문학박물관	세르누르
굴락박물관	요시카르-올라	유리노 미술관	유리노
아동전시센터	요시카르-올라	쇼룬자 민속문화박물관	쇼룬자
정교역사박물관	요시카르-올라	볼스크 민속박물관	볼스크
쿨류치니코프-팔란타이 박물관	요시카르-올라	마리-투레크 민속박물관	마리-투레크

9.3.2 극장

마리 엘 공화국에는 여섯 개의 전문 극장이 있으며, 대부분 요시카르-올라에 위치해 있다. 마리국립드라마극장, 마리공화국 러시아드라마 극장, 마리국립오페라발레극장, 마리공화국인형극장, 마리청소년극장, 산악 마리 드라마극장(코즈모데미안스크에 위치)이 있다. 이외 요시카르-올라에 마리국립필하모니가 있다.

먼저 마리국립드라마극장은 마리인의 가장 오래된 극장이다. 1919년

11월 설립된 ‘마리아극장’이 오늘날 마리국립드라마극장의 전신이다. 1929년까지 ‘마리아동극장’이었던 이 극장은 1929년부터 1948년까지 마리국립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48~1949년에는 마리 언론인이자 작가이면서 마리 극예술의 창시자인 야코프 마이오로프의 필명인 슈케탄의 성을 따라, 슈케탄 마리국립극장으로 바뀌었다. 1968년까지는 슈케탄 마리연합드라마극장, 1992년까지는 슈케탄 마리국립극장, 이후 2002년까지는 슈케탄 마리국립극장으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차이반, 슈케탄, 리바코프와 같은 마리 작가의 작품이 주로 오른다.

[그림 26] 마리민족드라마 극장⁴⁰⁾



슈케탄 마리국립드라마 극장에서는 주로 마리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면, 공화국에는 러시아 드라마극장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극장 역시 1919년 개관했는데, 당시에는 마리극장 산하의 분과와 같은 것이었다. 1937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팀이 독립적으로 첫 공연을 펼쳤다. 1968년에 마리국립극장에서 독립하여 그때부터 러시아 드라마극장으로 불

40) 김혜진 촬영

리기 시작했고, 1964~1994년까지 이 극장을 이끌던 감독 그리고리 콘스탄티노프의 이름을 따서, 1994년부터 그리고리 콘스탄티노프 러시아 드라마 극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마리 엘 공화국에는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과 발레,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극장이 있다. 바로 마리국립오페라발레극장과 마리국립필하모니이다. 마리국립오페라발레극장은 1968년 음악-드라마극장으로 개관하여, 1994년 오늘날의 지위를 얻었다. 개관 당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카잔 음악원의 졸업생들이 이 극장의 오페라 팀을 만들었고, 발레단은 레닌그라드와 페름 무용학교 출신들로 구성됐다. 1969년 2월 공식적으로 극장이 개관했으며, 첫 작품은 마리 작곡가 에리크 사파예프가 만든 오페라 ‘아크파티르’였다. 1972년 2월에는 마리 작곡가 아나톨리 루포프의 작품이자 첫 번째 마리 창작 발레인 ‘숲의 전설’의 초연이 이 극장에서 열렸다. 마리음악극장은 1994년 오늘날의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곳에서 공연된 첫 번째 마리 오페라를 만든 에리크 사파예프의 이름을 따르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 마리 엘 공화국의 극장들은 한 건물에 모여 있었는데, 2014년 마리국립오페라발레극장이 새로운 독립적인 건물로 이전했다.

[그림 27] 마리 국립오페라발레 극장⁴¹⁾

41) <https://ru.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8.1.23)



10. 대한관계

한국과 마리 엘 공화국은 아직까지 특별한 교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마리 엘 공화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가 한국일 뿐이다. 그러나 마리 엘 공화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전체 수입국 중에서 약 3%를 차지할 뿐이다. 양국의 관계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문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발레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가 이뤄진 바 있다. 2006년 남양주시에서 ‘세계 야외공연축제 2006’이 열렸을 당시 무용수이자 공화국 공훈배우이면서 러시아 국립 마리오페라 발레단 단장이 콘스탄틴 이바노프가 참석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거의 모든 클래식 발레 공연의 주연을 맡은 바 있으며, 볼쇼이 극장 초청 솔리스트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2002년 한국에서 볼쇼이 발레단이 초청 공연을 할 당시 볼쇼이 발레단에 속한 단 한 명의 동양인 발레리나 배주윤씨도 함께 방문하였다. 배주윤씨는 동양인의 외모 때문에 볼쇼이 극장에서 주연을 맡지 못한 한을 해외 공연과 지방 공연으로 달래왔다. 특히, 지방 공연 중 지난 4년 동안 마리 엘 공화국에서 20회 이상의 공연을 했다. 공화국은 이 공로를 인정하여 2002년 1월 공훈 예술가 칭호와 훈장을 수여했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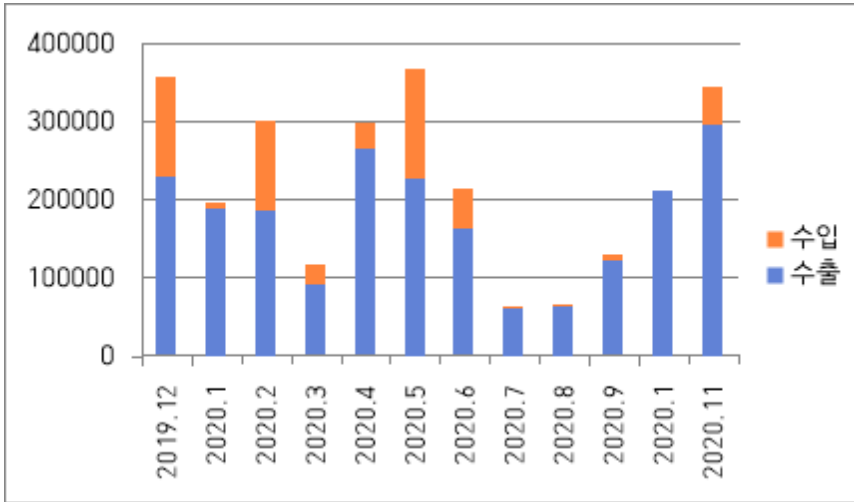
42) “전건주 기자의 취재/보도.”

<http://blog.naver.com/chonchu?Redirect=Log&logNo=110007618553>

(검색일: 2008.6.1), “볼쇼이 발레단원 배주윤씨 러 마리엘共 공훈훈장 받아,” 국민일보, 2002. 1. 26.

[그림 28. 마리 엘 공화국 대(對) 한국 교역구조(2019년~2020년)]

(단위: 달러)



출처:

<https://ru-stat.com/date-M201912-202011/RU88000/trade/KR>(검색일:2022.01.29)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대(對) 한국 교역량은 약 260만 달러로 마리 엘 공화국의 주요 교역국 중 약 1% 점유율을 보이며 23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연방의 대(對)한국 교역량 전체에서 마리 엘 공화국은 러시아 85개 연방 주체 중 61위에 위치하며 매우 낮은 순위이다. 주요 교역 품목으로 책, 종이, 판지류가 약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리 엘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마리 엘 공화국이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주로 하고 있으며 수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과 마리 엘 공화국은 러시아 국립 마리스키 발레단 공연 외에 아직까지 특별한 교류는 없다. 2006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남양주시에서 개최된 ‘세계야외공연축제2006경기’에 러시아 국립 마리스키 발레단이 참석하여 발레공연을 선보였다. 당시 참석한 러시아 국립 마리스키 오페라 발레단 단장 콘스탄틴 이바노프는 무용수이자 마리 엘 공화국 공훈 배우로 유명하다. 그는 러시아에서 거의 모든 클래식 발레 공연의 주연을 맡고 있으며 볼쇼이 극장 초청 솔리스트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 마리스키 발레단은 ‘세계 명작 발레 하이라이트’라는 주제로 세계 발레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백조의 호수’ 중 제2막, ‘Gopak’, ‘타란 텔라’, ‘Awakening’, 차이코프스키의 ‘Classical Pas de Deux’, ‘호두까 기 인형’ 중 Pas de Deux, ‘Esmeralda’ 중 Pas de Deux, ‘발푸르기스의 밤’을 공연했다.⁴³⁾

[그림 29. 러시아 국립 마리스키 발레단 공연]



출처:<https://blog.naver.com/chonchu/110007618553>(검색일:2022.01.29)

<참고문헌>

43)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55>(검색일:2022.01.29)

러시아연방 통계청 <http://www.gks.ru>
러시아연방 외무부 <http://www.mid.ru>
마리 엘 공화국 <http://gov.mari.ru>
마리 엘 공화국 국가회의 <http://parlament.mari.ru>
마리엘 공화국 통계청 <http://maristat.gks.ru>
볼가국립공대 <http://www.volgatech.net/>
요시카르-올라 시정부 <http://i-ola.ru>
핀-우그르문화센터 <http://www.finnougoria.ru/>
해외산업정보 <http://kiet.go.kr>
위키피디아 미국 <http://en.wikipedia.com>
위키피디아 러시아 <http://ru.wikipedia.org>
위키피디아 한국 <http://ko.wikipedia.org>
인터넷 사이트 www.ohmyweb.net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cus.com>
인터넷 사이트 <https://www.marpravda.ru/>
인터넷 사이트 <http://www.tks/ru/news/nearby/2017/03/30/0010>
권세은 외 역음. 『볼가연방지구』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
전건주. “전건주 기자의 취재/보도.”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honchu?Redirect=Log&logNo=110007618553>.

손병호. “볼쇼이 발레단원 배우윤씨 러 마리엘共 공훈훈장 받아.” 국민일보 2002년 1월 22일자.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субъектов РФ. 2016.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NRF-362-2009-1-B00005)의 지원으로 출간됩니다.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 마리 엘 공화국

편저자 | 김혜진

발행일 | 2018년 월 일

발행인 | 강덕수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전 화 | 031-330-4852

이메일 | irs@hufs.ac.kr

출판팀 | 도서출판 **참 글**

등록 제 7-0844호

(02)968-5454. ichamgle@hanmail.net

본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홍완석교수 지도하에 러시아-CIS학과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ISBN